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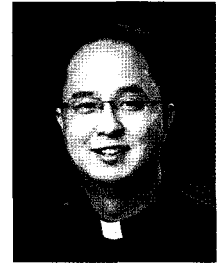
가장 작은이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서울대학교 일반병원사목부 소개 및 현황

• 서울대학교 일반병원사목부는 '일반병원사목', 'CPE센터', '가톨릭 간병인회'로 구성되어 있다.

01 | '천주교원목실'이란?

천주교원목실은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말씀에 따라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동반자임을 깨닫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하는 곳이다.



홍상표 바오로 신부
서울대학교 일반병원사목부

02 | 원목실 현황

No	병 원 명	신부	수녀	사무장	봉사자	비고
1	강남성심병원	1	1	1	75	2006년 천주교원목실 개설
2	강동성심병원	1	2	1	102	
3	강북삼성병원	1	1	1	53	2002년 천주교원목실 개설
4	건국대학교병원	1	1	1	37	2005년 천주교원목실 개설
5	경희의료원	1	1	1	28	
6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1	1		36	2002년 천주교원목실 개설
7	고려대학교 인암병원	1	1		70	2003년 천주교원목실 개설
8	국립경찰병원	1	1	1	187	2005년 천주교원목실 개설
9	국립중앙의료원	1	1		34	골룸반회 2004년 천주교원목실 개설
10	국립재활원	1	1		23	
11	삼성서울병원	1	1	1	162	
12	서울대학교병원	1	2	1	158	
13	서울백병원		1		25	국립재활원 겸임
14	서울보훈병원	1	1	1	65	
15	서울시 동부병원	1	1			2010년 천주교원목실 개설
16	서울시 보라매병원		1	1	24	서울시 동부병원 겸임
17	서울시 북부병원	1	1		48	전 서울시 북부노인병원 2007년 천주교원목실 개설
18	서울아산병원	1	2	1	160	
19	서울의료원		1		70	국립경찰병원 겸임
20	순천향대학교병원		1		28	고려대구로병원 겸임 2002년 천주교원목실 개설
21	신촌세브란스병원		1		25	

22	원자력병원		1		46	서울시북부병원 겸임 2002년 천주교원목실 개설
23	제일병원		1		21	강북삼성병원 겸임
24	중앙대학교병원(흑석동)	1	1		25	과달루페회 2005년 천주교원목실 개설 용산(2003년 개설)과 흑석동 병원 2곳이었으나 2011년 용산병원은 없어짐.
25	한강성심병원	1	1	1	91	
		18	28	12	1,593	

- 일반병원사목부는 CMC를 제외한 서울시내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2011년 10월) 25개 병원에서 사제 18명, 수도자 28명이 원목활동을 하고 있다.

- 2011년 2월 11일 세계병자의날 행사
 4월~6월 연극 '죽이는 수녀들 이야기' 공동주최
 9월 일반병원사목부 로고 선정
 10월 일반병원사목부 10주년 행사(환자의 날, 봉사자의 날, 교우회의 날)



2011년 10월 5일은 일반병원사목부가 탄생한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10년 전, 일반병원사목부는 '병원 교우회'라는 명칭으로 직장사목부에 속해있었고, 그것을 체계화하면서 '일반병원사목부'로 분리되었다. 초기에는 10여 개의 병원들로 원목실이라고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성직·수도자들이 조금씩 활동하던 것을 취합하고 연계하면서 오늘의 일반병원사목부로 태어났다.

현재 25개 병원에서 사제 20명(임상사목담당 수퍼바이저 신부 1명, 일반병원사목 담당신부 1명 포함), 수도자 30명(임상사목담당 수퍼바이저 수녀 1명, 교육담당 수녀 1명 포함)이 원목활동을 하고 있으며 원목을 돕는 자원봉사자도 1,593명이 있다. 서울대교구 일반병원사목부는 특수사목 소속으로 최창화 몬시뇰이 함께하며, 사무장 12명이 활동을 돕고 있다.

- 원목실이 들어가지는 못해도 교우회가 있는 6곳 : 국립서울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한일병원, 한양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 신촌 세브란스병원 : 천주교원목실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원목수녀가 10년 넘게 활동하였다.
2011년 사회복지실과 함께 사용하긴 하지만 원목실이 생겼다.
- 각 병원의 원목 프로그램은 환자방문과 성사집행, 교우회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영적돌봄이다.

03[!] 일반병원사목부의 교육 프로그램

과거에는 임상사목교육을 받지 않아도 원목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모든 원목자들이 임상사목교육을 받고 있으며 원목봉사자 교육도 다양하게 넓히며 강화하고 있다.

1. 원목봉사자 교육

환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목적 배려를 위해 평신도를 양성하여 알맞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본과정인 제Ⅰ과정 수료 후, 제Ⅱ과정과 제Ⅲ과정은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1) 제Ⅰ과정

- 1주간 : 원목봉사자의 소명과 역할, 환자 방문 시 유의사항, 환자와의 대화기법(1)
- 2주간 : 환자의 심리, 환자와의 대화기법(2)
- 3주간 :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 -하느님 안에서 나를 찾아가기- 영적돌봄 I(1)
- 4주간 : 영적돌봄 I(2), 환자에 대한 성사적 돌봄, 수료미사

(2) 제Ⅱ과정

- 1주간 : 환자와의 대화 기법과 공감적 경청, 원목봉사자의 자기 이해
- 2주간 : 환자방문의 신학적 성찰 방법론, 영적돌봄 II
- 3주간 : 호스피스
- 4주간 : 가톨릭 의료윤리(교회 가르침), 고통과 죽음에 대한 신학적 고찰, 수료미사

(3) 제Ⅲ과정

- 1주간 : 생명윤리, 영적돌봄 III
- 2주간 : 원목봉사자의 자아성장 훈련(1), (2) QMT (Quality Management Training)
- 3주간 : 원목봉사자의 자아성장 훈련(3), (4) QMT
- 4주간 : 축어록 작성법, 축어록 사례연구, 수료미사

(4) 보수교육

원목봉사자들이 원목실에서의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방법과 그룹별 나눔(환자방문의 경험 성찰), 구체적인 역할극과 사례연구를 통해 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교육이다. 이 교육은 원목봉사자교육 제Ⅰ과정을 수료한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생명위원회와 연계해서 생명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 임상사목교육 (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

임상사목교육은 강의 위주의 일반적인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사목현장에서 사목자 각 개인에게 필요한 인간적 성숙을 위한 개인적 역량과 사목자로서 전문 사목적 역량을 키우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개

별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1) 임상사목교육의 목적

교육생들이 탐구하고 평가하는 동료그룹 안에서 수퍼바이저의 사목적인 지도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배운다.

개인적, 사목적 정체성 / 사목적 배려 차원에 대한 이해 / 사목적 기능 / 다른 전문직들과의 관계 / 자신의 경험에 대해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 자신의 신앙을 의미 있게 소통하는 능력 / 개인 상호관계 / 성장하고, 배우고, 인간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할 때 자신의 가정 및 태도와 가치 / 삶에 대한 자신의 근거 없는 가정(假定) /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구조에 통합하는 능력

(2) 임상사목교육 대상자

원목자, 성직자, 본당 및 특수사목자, 수도자, 신학생 및 자격 있는 평신도(의료분야전문가 혹은 서울대학교 일반 병원사목부에서 실시하는 3단계의 원목봉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교리신학원 이상의 신학과정을 이수한 평신도)

또한 일반병원사목부는 성직·수도자들이 매달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연수도 하며 CPE 외에 리더십교육, 심리치료 및 음악치료도 실시하고 있다. 1년에 봄, 가을 정기 연수를 통해 일반병원사목부의 방향성을 잡고 있다. 늘 바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중심의 영적돌봄이며 환자는 성직·수도자의 얼굴만 봐도 위안을 얻는다. 가톨릭계병원과 달리 일반병원은 천주교원목실이 원내 있다는 것을 환자나 가족들이 잘 모른다. 그곳에서 신부·수녀를 만나면 뜻밖에 너무나 반가와 하며 많은 위로를 받는다. 냉담자들도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영적돌봄은 교우환자들뿐만 아니라 전 환자가 대상이며 이 돌봄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

환자방문 시 거부도 당하지만 그만큼 환영도 많이 받는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체험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환자를 만나는 일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04 | 일반병원사목부의 문제점

1. 인지도

처음에는 병원에서 생각하는 인지도가 문제였다. 원목실이 과연 병원에 필요한 건가? 라는 물음을 많이 받았다. 왜 필요한가? 존재의 이유가 있는가? 선교의 장이 아닌가? 하는 반문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전에 비해 많이 정착되어서 당연히 천주교원목실이 병원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한때 천주교원목실을 개설하게 해 달라고 병원들을 돌아다녔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천주교원목실을 개설할 수 있게 파견 요청을 해 오는 병원들이 있기도 하다. 파견할 성직·수도자들의 수가 제한적이기에 CMC를 제외한 서울시내 400명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일반병원사목부가 25개의 병원을 포함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교구마다 일반병원사목부의 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전국의 일반병원사목부를 아우르는 곳은 현재 없다. 전국의 일반병원사목부의 현황을 알고 싶으나 몇 개 교구에 전화를 해 보니 문제가 또 있었다. 일반병원사목부를 관리하는 곳이 교구마다 다르다. 즉 편제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교구와 대전교구는 특수사목에, 수원교구는 사회복음화국, 광주대교구는 사회사목국에 속해있다. 편제가 정확히 같지 않아 통합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느낀다. 이 통합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나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전체가 모임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서울대교구가 크기는 하지만 각자의 병원사목부가 고유체이기 때문에 어울어지기에는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되지 않나 한다.

2. 전문화 필요

원목은 전문성이다. 더 전문화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병원에 관심 있는 성직·수도자 파견이 더 많아져야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야 한다. 또 원목자들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임상사목신학(theology)'을 공부하고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임상사목신학'은 학문이며, 임상사목교육은 임상사목신학 안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며 실천에 필요한 교육이다. 우리나라엔 임상사목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없다. 외국에서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으며 영국, 미국,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임상사목신학자와 CPE 슈퍼바이저가 배출되어야 한다.

계속 강조하지만 교육의 중요성과 전문가의 필요함을 느낀다. 원목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들어갈 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원목에 투신할 사람들이 필요하므로 신학생들에게 병원현장 체험을 해보게 한다.

3. 홍보 부족

천주교원목실이 알려지지 않은 원인을 고민하고 있으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파야만 병원에 가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평상시엔 관심이 없으니까. 주보나 신문을 이용할 것이며 전국 본당 게시판 활용과 홍보 책자를 만들 예정이다. Health & Mission이 홍보를 해줘도 좋겠다.

4. 비전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죽으므로 죽을 때까지 병원과 연계가 있다.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환자이므로 항상 병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CMC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과거보다 더 많아지고 있으며 병원사목이 미래에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 생각된다.

병원은 바쁜 곳이고 또 영적 갈망이 많은 곳이다. 교우회 및 원목자들의 활동에 다시 한 번 응원을 보낸다.

